







□  
□□  
□□  
□□  
□  
□□  
□  
□□  
□□  
□  
□  
□□  
□□  
□□  
□□  
□  
□□  
□  
□□  
□□  
□□  
□□  
□□  
□□  
□□  
□□  
□□.



<선을 넘는다. 얼마든지 넘을 수 없다>\_장지에 수묵채색\_244×720cm\_2014



Q. 어떤 것 같아

A. 2013년 1월 10일(수)에 열린 전시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, 작품은 매우 추상적이고, 관람객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. 작품은 마치 물결이나 구름 같은 형태를 띠고 있으며, 색감도 매우 부드럽고 차분하다. 또한, 작품의 크기가 상당히 크고, 전시 공간에서 볼 때 매우 웅장하고 압도적인 느낌을 준다. 이 작품은 2013년 1월 10일부터 1월 13일까지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창강빌딩 1003호에서 전시되었다.



<가장 외로운 ..>\_장지에 수묵채색\_161.5x129.5cm\_2013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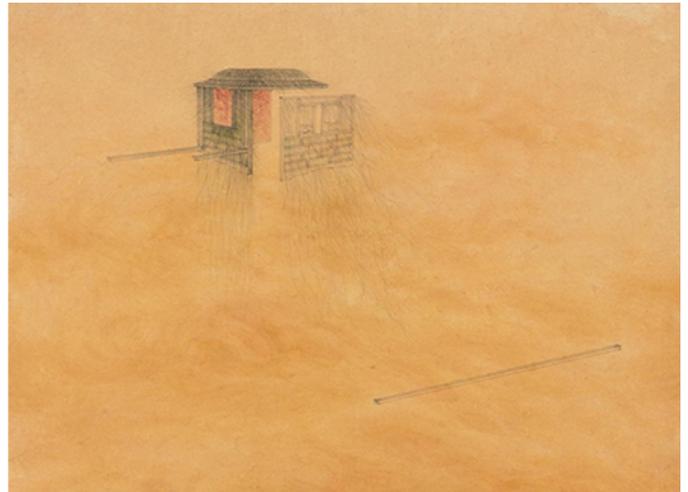
<부합>전시 전경\_창강빌딩 1003호(서울시 중구 소공동)\_2013

Q. 어떤 것 같아, 어떤 것 같아, 어떤 것 같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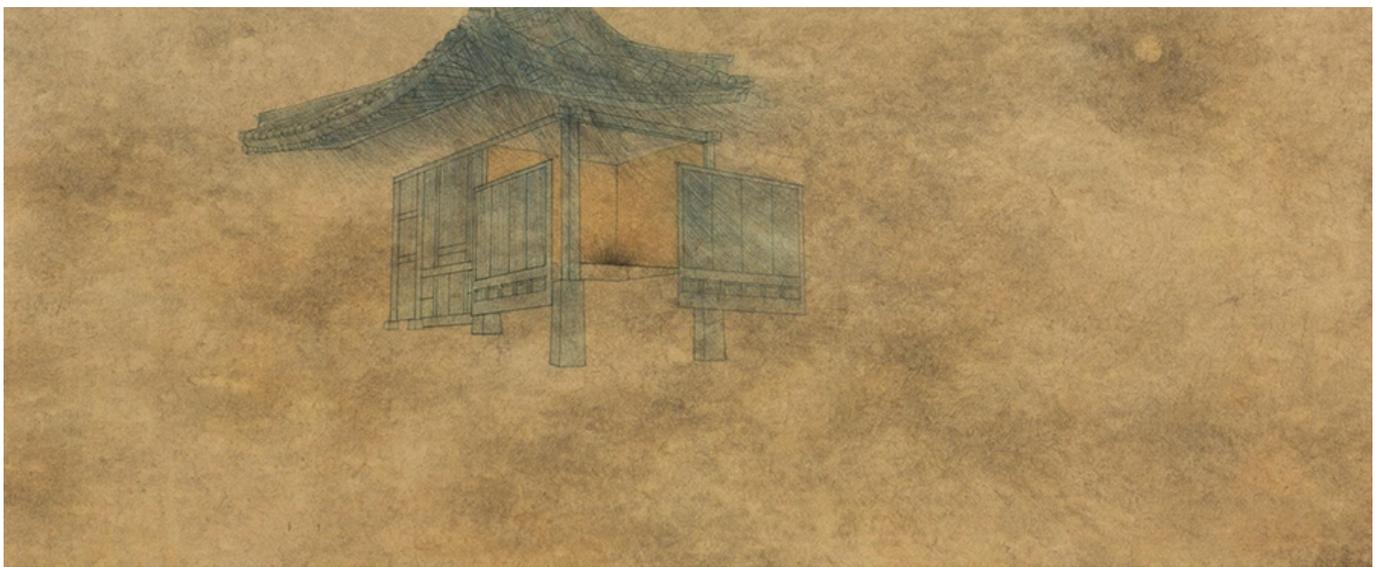
A. 이 작품은 매우 추상적이고, 관람객의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. 작품은 마치 물결이나 구름 같은 형태를 띠고 있으며, 색감도 매우 부드럽고 차분하다. 또한, 작품의 크기가 상당히 크고, 전시 공간에서 볼 때 매우 웅장하고 압도적인 느낌을 준다. 이 작품은 2013년 1월 10일부터 1월 13일까지 서울 중구 소공동에 위치한 창강빌딩 1003호에서 전시되었다.



<Stuck>\_장지에 수묵채색\_180x245cm\_2008



<나도 간다... .. !>\_장지에 수묵채색\_ 45x45cm\_2013



<흔들리는 불안>\_장지에 수묵채색\_59x135.5cm\_2013

**Q.** □□,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

**A.**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.  
 □□□ □□□ □ 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'□□□ □  
 □□□'□□. 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□ □□ □□ □□  
 □□□□.



<Odd space>\_장지에  
 수묵채색\_32x47cm\_2017

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 □□□ □, 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, □□□ □□

공간은 어떻게든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 같다, 이 공간은 어떻게든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 같다, 이 공간은 어떻게든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 같다.

Q. 공간은 어떻게든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 같다

A. 이 공간은 어떻게든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 같다. 공간은 어떻게든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 같다. '공간'은 어떻게든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 같다. 공간은 어떻게든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 같다. 공간은 어떻게든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 같다.



<밤의 달>\_장지에 수묵채색\_58x120cm\_2017

공간은 어떻게든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 같다. 이 공간은 어떻게든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 같다. 이 공간은 어떻게든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 같다.

Q. 이 공간은 어떻게든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 같다, 어떻게?

A.

